

한국인의 대인관계의 심리사회적 특성: 집단주의적 성향과 개인주의적 성향으로의 변화

이 중 한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한국사람들의 대인관계에 관한 심리사회적 특성을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먼저 우리의 공동생활을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하여 오늘날 우리의 집단주의적 성향의 공동생활의 뿌리를 유교의 가르침에서 찾아보았다. 대인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비교문화심리학적 연구의 주류를 이루는 집단주의-개인주의의 관점에서의 연구들은 한국사회를 전형적인 집단주의 문화로 분류하였다. '우리'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와 동창회와 같은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동생활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한국인들의 공동생활에서 집단주의적 성향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동창회는 회원들의 친목도모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규정하는 반면에 미국의 동창회는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설립목적으로 하여 대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한국에서 실시된 몇몇 연구들은 한국인의 가치관과 인간관계 등 문화적 규범이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통적인 집단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PC동호회의 출현은 한국사회에서 공동생활의 급격하고 역동적인 변화를 예고한다고 본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나라의 산업화와 경제적 발전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까지의 연구결과와 시간의 흐름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는 한국문화가 전형적인 집단주의 문화의 성향을 견지하고 있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은 이미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 함은 누구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닌 누군가와 서로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생활하면서 나타내는 심리적 특성을 연구하는 학문이 사회심리학이다. Allport (1968)는 사회심리학을 개인들의 행위가 실제적이건 가상적이건, 타인의 존재에 의하여 영향받는 과정과 관련된 사고, 행위, 상호작용에 대한 과학적 연구라고 정의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회심리학은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의 본성과 그 원인을 탐구하는 학문이라 하겠다. 사회라는 환경의 전제 없이 인간의 심리를 파악한다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그래서 대인관계는 사회심리학뿐 아니라 대개의 사회과학이 가지는 관심거리라 하겠다.

한국인의 대인관계에 대한 연구는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등의 주제로 사회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90; 임희섭과 박길성, 1993; 임태섭, 1995; 최봉영, 1994; 최재석, 1989 등). 최근에는 한국의 심리학자들도 한국인의 대인관계의 속성에 대하여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윤태림, 1964; 이수원, 1984; 차재호와 정지원, 1993; 최상진, 1993 등).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심리학 연구의 결과가 다른 국가나 사회에서도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회의는 심리학에 있어서 새로운 영역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심리학의 원리와 연구결과들이 모든 문화와 사람들에게 보편성을 가지지 못하고 한 개인이 살아가는 환경과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문화적 특수성을 발견하였다(Berry, Poortinga, Segall, & Dasen, 1992). 인간의 심리에 대한 보편성과 문화에 따른 특수성을 탐구하는 영역이 비교문화심리학(cross-cultural psychology)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즉, 대인관계에 대한 최근 사회심리학의 연구에서 비교문화심리학적 접근으로 집단주의-개인주의의 개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이종한, 1992; 조공호, 1999; 조남국, 1991; 한규석, 1991; Hofstede, 1980, 1983; Triandis, Leung, Villareal, & Clark, 1985; Triandis, 1988 등). 일반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전형적인 집단주의로 분류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문화를 개인주의 문화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룬다. 우리 나라의 경우 20세기에 들어 어느 나라보다 급격한 사회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가치관, 행동규범을 포함하여 문화적 규범이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우리 나라 사람들의 인간관계의 사회심리적 특성을 집단주의-개인주의의 관점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인간관계를 몇몇 사람들간의 개별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간관계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사람들의 모임인 집단 또는 공동체 단위의 생활에 관한 연구를 주로 참조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인간관계의 근원을 찾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최근 비교문화심리학적 연구에서 집단주의와 ‘우리’에 관한 연구결과를 검토하였다. 한국문화를 집단주의로 분류하고 우리 나라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험적 연구 결과를 정리하였다. 최근 한국 사회가 급격히 변하면서 개인주의적 성향도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결과를 통하여 한국 사회가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논의에서는 변해 가는 우리 나라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대하여 심리학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될 것이지에 관하여 간단하게 논의하였다.

역사적 고찰

서구의 문화는 기독교정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독교정신에 의하면, 인간은 신의 의지에 따라 창조된 피조물로서 신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각 개인의 존재는 신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인간의 신성한 존엄성은 신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신 앞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하다. 신의 피조물인 인간은 신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인간은 다른 인간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침해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평등주의는 서구의 개인주

의 문화의 기초가 된다(Kalton, 1979/1988). 또한 밀(Mill, J. S., 1806-1873)은 자신의 저서 '자유론'을 통하여 개인의 의견이 존중되는 사회를 개인주의 사회의 기틀이라고 주장하며 개인주의 사상을 정립하였다. 반면에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의 역사적 배경은 도교, 불교, 유교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조선조 500년의 통치철학이었던 유교적 가르침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바탕이 되어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를 지녀왔다.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말할 때 여러 가지 자연신에 대한 숭배, 무속, 불교, 충과 효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유교의 가치관과 예절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조선 왕조의 몰락은 유교가 표면적으로 쇠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전통적인 신분제도의 붕괴와 일제강점기 동안의 유교에 대한 억압은 우리사회에서 유교의 쇠퇴를 가속화 시켰다. 그리고 해방 이후의 서구문명의 급속한 유입은 유교의 영향력을 급속도로 약화시켰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대한 유교문화 영향력의 감소를 제도 및 기능적 차원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 배어있는 전통문화라는 말의 내용에서 유교적 전통이 그 핵심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박기순, 1995).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유교적 전통에 얼마나 익숙한지는 한국궐립연구소(1990)의 조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1989년에 실시한 이 조사에 따르면, 불교신자의 72%, 개신교 63%, 천주교 61%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70%는 본인이 유교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한국 사람들의 70% 정도가 자신의 종교와 관계없이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규범에 유교적 잔재가 여전히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유교의 근본 사상은 인(仁)이다. 인(仁)의 한자를 풀어 보면, 사람 인(人)과 두 이(二)가 합쳐진 것으로 인의 근본 개념이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공자는 제자들의 인에 대한 질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愛人)' 또는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克己復禮)'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여, 인은 타인

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타인에 대한 공감과 동정을 바탕으로 한 예의이다(Fung, 1952). 이러한 유교의 정신은 동몽선습(童蒙先習)에서 삼강오륜(三綱五倫)이라는 구체적인 행동 규범으로 어릴 때부터 가르쳐왔다.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 행동규범은 각 개인의 고유한 가치보다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강조하게 되었고 우선적으로 효(孝)를 근간으로 하는 가족주의의 발달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최재석, 1987; 한상복, 1980; Kalton, 1979/1988).

공동생활의 가장 기본적 단위는 가족이다. 물론 유교적 가르침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가족으로부터 출발한다. 공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이 가족에서 구체화되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며 바로 효를 말한다. 효를 강론한 효경(孝經)에서는 "우리의 신체와 머리카락 그리고 피부는 모두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함부로 이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라고 가르쳤다. 이렇게 신체적인 유산뿐만 아니라 부모의 크고 작은 모든 바램을 받들어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효라고 하였다. 한편 부모는 자녀를 성실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다. 자녀 입장에서 본다면 부모의 양육에 대한 보답이 효일 수 있다. 이러한 관계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확대되어 뒷사람의 보살핌과 아랫사람의 효가 어우러져서 온전한 가족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족 내에서 인이 구체화되어 실천된 모습은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의미는 거의 없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는 상대방 또는 타인 중심의 삶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권리와 의무의 관점으로 가족의 삶을 해석한다면(조맹기, 1995), 권리보다는 각자의 의무를 더 중요하게 고려한 것이 분명하다. 즉,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충실히 해야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여 효를 다해야 한다.

가족에서의 예인 효는 충(忠)으로 변환되어 보다 넓은 범위의 조직인 문중과 사회 그리고 중국적으로는 국가에 적용된다. 가족 공동체의 효는 직계조상을 포함한 문중 공동체로 확대되었고 가장 넓게 연장된 것이 나라의 임금에 대한 충성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삼강오륜은 부자, 군신, 부부, 장유 그리고 친구관계에서의 예(禮)를 교육하는 것이며 공동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인간관계의 예를 중요시 한 것이다. 조맹기(1995)는 이러한 확대된 공동체에서의 인간관계는 가족관계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슷하다고 하였다. 공동체는 독립된 개인의 군집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공동체를 전근대시대로부터 개관하면(김혜숙, 김영진, 김완석, 나은영, 이종한, 조성을, 최진호, 1997), 양반계급으로 이루어진 지배층의 조직과 피지배층인 민의 조직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지배층의 조직으로는 족계와 향안을 들 수 있고, 지배층 조직의 하부에 피지배층을 포괄하는 조직으로 향약이 있었다. 이러한 양반사회의 공동체는 우리 나라에서 문중이 조직되기 시작한 16세기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17세기에 들어 문중조직이 체계화되면서 족계와 향안은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족계는 문중조직과는 별개로 문중조직 내에서 다시 공동의 이해관계와 유대를 위해 따로 만든 조직이다. 이 족계는 문중의 서원, 재실 등의 건립과 선조의 문집간행사업 등을 주로 하였다(최재석, 1966). 동성촌락이 발전한 것도 족계 형성의 기반이 된다. 19세기 중반 이후 문중조직이 대종회 형태로 전국적 조직망을 형성되면서 족계는 오늘날의 회수회 형태로 남아 있다고 본다. 향안은 지배층들의 향촌 권력 유지를 위한 공동체의 성격을 가졌었다(김인걸, 1983). 향안은 문중조직의 강화와 함께 그 기능이 강화되기도 하였으나 18세기 이후 향촌사회의 권력 다툼과 중앙권력의 강화 등의 원인으로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향안은 개항 이후 신분제도의 소멸과 1895년 지방제도 개혁과 더불어 사라졌다. 이 향안과 유사한 형태의 공동체를 오늘날 찾는다면 동창조직을 들 수 있겠다. 조선시대의 양반계층의 조직인 족계와 향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구성원들인 양반들이 유교적 가치체계인 효와 충을 바탕으로 서로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가 가족 공동체의 인간관계가 연장된 것이라는 점이다. 공동체에 있어서 개인의 개성

을 억누르고 자신이 속한 가족과 문중에 몰입하는 인간관계는 오늘날 우리 나라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을 강하게 가지게 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한편 피지배층 나름대로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촌계와 두레를 조직하여 협동노동조직과 경제적 상호부조를 하였었다. 지배층의 인간관계가 효와 충을 덕목으로 한 가족주의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반면에 피지배층의 평민들은 가족과 문중보다 이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그들의 인간관계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조맹기, 1995). 조선조의 평민, 상민 또는 천민들은 사회경제적 여건이 극도로 열악하여 지배층과 같은 대가족을 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핵가족 형태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다. 자연히 이들은 가족보다는 가까이 사는 이웃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었고 서로의 일을 도와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키운 것이다. 평민들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두레이다. 신용하(1987)는 두레는 일종의 작업공동체로서 두루, 모두 그리고 전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두레라는 말은 부분과 전체를 모두 포함한다. 즉, 두레 속에서 부분은 부분으로 인정되지만 그 부분은 전체에 의해서 묶여진다. 두레의 인간관계는 그들의 우두머리인 영좌를 중심으로 민주적이었다고 한다. 두레의 작업장에는 항상 농악이 함께 하였는데, 농악의 북, 징, 쇠, 장고 등의 소리가 따로 있지만, 서로 다른 악기들의 소리가 언제나 전체 농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어우러져야만 된다. 농촌사회의 쇠퇴와 함께 두레는 현대사회에서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두레 정신은 197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 나라에서 지역사회운동의 핵심을 이루어 온 새마을 운동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유철중, 1980). 그리고 오늘날 노동현장에서의 서로 돕는 것에서 두레의 잔재를 엿볼 수 있다. 현대의 노동조합의 구성원의 인간관계와 기능이 두레와 다르기는 하지만 역사 속의 두레가 대치된 것으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두레와 함께 평민들의 생활을 묶어주었던 공동체가 촌계이었다. 두레가 노동에 집약된 공동체라면 촌계

1) 공동체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공동체자들 중에서 역사학자인 조승을 교수가 집필하였다.

는 평민들의 생활 전반적인 것을 관장하는 공동체가 었다. 촌계에서는 서낭신에게 공동으로 제사지내고, 마을 곳을 통해 서로의 친목을 다지고, 마을의 모든 생활을 공동으로 규제하고 두레를 조직하여 운용하는 등 농민들의 생활 감정과 평등의식에 입각하여 상부 상조하는 유대관계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촌계를 계승한 것 가운데 오늘날 남아 있는 공동체는 어촌계를 들 수 있겠다(김혜숙 등, 1997).

조선조에 있어서 평민들의 공동체인 두레와 촌계의 형성 배경이 지배층의 그것과 다르기는 하지만, 평민들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인간관계도 집단의 조화를 강조하는 집단주의의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나 노동을 할 때나 개인의 고유성보다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간의 조화와 친목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집단내의 인간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전근대 향촌사회는 근대적 상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해체되어 그 구성원이 대거 도시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에서 향촌사회에서의 공동체적 유대는 향우회, 친목계, 동창회, 관혼상제의 상호부조, 화수회 등의 형태로 현대사회에 강인하게 남아 있다(김혜숙 등, 1997).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인간관계는 관계 중심적이다. 관계중심성의 철학적 바탕은 유교의 인이었으며, 이는 사람간의 관계를 강조함과 동시에 개인의 욕구의 표현을 자제하는 극기를 통하여 상대에게 예를 다하는 모습이다. 일차적인 집단인 가족에 있어서는 효의 실천이 근본이고 더 큰 조직 또는 국가에 있어서는 충이 인간관계의 근본을 제공하였다. 가족의 인간관계는 문중과 같은 더 광범위한 조직으로 연장되어 일반화되었다. 조선시대에서 평민들의 공동체인 촌계와 두레의 인간관계는 가족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없지만, 이웃끼리 함께 제사지내고, 친목을 다지고, 서로 도우며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인간관계는 공동체 전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선조에 있어서 지배계층인 양반과 피지배계층인 평민들의 공동체 어디에서도 구성원들의 인간관계가 오늘날 비교문화심리학의 탐구과제인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집단주의적 성향

집단주의-개인주의와 '우리' 개념 비교

여러 문화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관찰을 근거로 인간의 심리·사회적 현상의 다양성을 문화인류학자인 Mead(1967)가 일찍이 주장한 바 있으며, 심리학에서도 개인의 행동규범을 비교문화의 틀로 구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Hofstede, 1980, 1983; Triandis, Leung, Villareal, & Clark, 1985; Triandis, 1988 등). 이 연구자들이 비교문화적 접근을 하면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이 집단주의-개인주의(collectivism-individualism)이며 개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문화형태에 따라서 그 행동양식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에 관한 여러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내리는 결론이 있다(Hofstede, 1993; Hsu, 1971; Pai, 1990; Triandis et al., 1985). 집단주의 문화의 특성으로는 내 집단의 행동규범에 따른 조절, 상호의존성, 개인의 목표를 내집단의 목표에 종속시킴, 내집단의 조화를 중요시, 내집단이 개인의 심리적 장의 중심, 내집단은 개인의 확장, 내집단에 의해서 사생활이 침해되고 내 집단에 의해서 의견이 미리 주어짐, 구성원들간의 정서적 의존, 안정된 비자발적 내집단, '우리' 의식, 전문성, 질서, 의무, 안정감 등이 조직으로부터 주어짐, 안정된 관계 속에서 우정의 우선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개인주의 문화의 특성으로는 개인에 따른 행동규범, 자기 충족적, 개인의 목표와 내집단의 목표가 무관, 내집단에서의 갈등이 허용됨, 개인이 심리적 장의 중심, 내집단과 개인이 분리됨, 각 개인의 사생활과 의견을 가질 권리가 주어짐, 집단으로부터 개인의 정서가 독립, 잠정적이고 자발적 집단, '나' 의식, 자율성, 다양성, 즐거움, 개인의 재정적 안정성을 개인적으로 추구, 특수한 관계에 대한 요구의 우선 등이 다.

조금호(1999)는 집단주의 문화를 관계중심적으로

그리고 개인주의 문화를 개체중심적인 것으로 보고 이들 두 문화권에서 문화유형에 따른 동기의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전자에서는 의존성, 자기억제, 그리고 행위가변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타인지향 동기, 사회지향적 성취동기, 욕구통제 동기, 동조동기, 자기개선동기가 두드러진 반면에 후자에서는 자율성, 자기표현, 그리고 안정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개인지향 동기, 개인지향적 성취동기, 환경통제동기, 자기교양 동기, 그리고 일관성추구동기가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두 문화권의 근본동기로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자기확장(self-expansion)동기가 그리고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기실현(self-actualization)동기가 지배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조국호의 연구(1999)는 이제까지 여러 나라에서 반복적으로 확인 되어온 집단주의-개인주의 문화의 가치관과 행동특성의 비교를 보다 내면적인 동기 차원에서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동양의 고전을 함께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미를 돋보이게 하였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의 거의 모든 내용이 그러하듯이 집단주의-개인주의 개념과 이를 구성하는 용어들이 모두 서양 심리학의 발상이다. 최근에 한국에서 토착 심리학(indigenous psychology)과 문화심리학(cultural psychology)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심리학자들이 전개하는 연구주제들은 매우 한국적인 주제이고 용어들이다. 그 중의 한가지가 집단주의-개인주의 문화를 비교/구명하는 개념으로 '우리'를 사용한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동서양의 인간관계를 비교하는 집단주의-개인주의 개념 못지 않은 효율적인 방법이라 판단된다.

혼자가 아닌 둘 이상을 포함하는 뜻으로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며 이 단어에는 '나' 이외의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언제나 전제된다. 그런데 이 '우리'라는 말을 비교문화의 관점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는 앞에서의 집단주의-개인주의의 개념들의 비교를 인간관계와 집단에 연관시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우리'라는 말이 지니고 있는 사회심리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박수현·최상진, 1990; Choi & Choi, 1990; Choi et al.,

1993)는 대학생들 상대로 '우리'와 연관된 다양한 사고와 경험을 조사하였다. 한국사람들은 '우리 나라', '우리 남편/마누라', '우리 집', '우리 사이', '우리 동창회' 등과 같이 '우리'를 매우 자주 광범위하고 한국 문화에서만 통용될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하게 사용한다. 한국에서는 흔히 '우리 마누라'라고 말하지만, 이 말을 영어로 직역하면 'our wife'가 되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한국의 가족제도가 일처다부제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마누라'는 다분히 한국적인 언어습관이다. '우리'의 사용빈도에 있어서 서양의 'we, our, us'와 가까운 일본의 '와래와래' 보다 훨씬 많다. '우리'와 연상되는 반응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감정적 연대감으로 55%이었고, 이는 '정', '친밀감', '푸근함', 그리고 '상호수용'의 반응이었다. 두 번째로 높은 반응은 동질성과 유대의식(16%)으로 '하나됨'과 '동류의식'에 관한 반응이었다. 다음으로 관계성(13%), 협동(5%) 그리고 개인들의 집합(5)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들의 '우리'는 가족에서 나타나는 나와 타인이 미분화된 심리적 연대감을 강하게 반영하는 확대된 가족의식을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공식적 모임이나 비공식적 모임에서 서로의 유대와 결속을 촉구하면서 가족적 분위기를 강조하는 것이 한국인들의 '우리'의식의 단면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개인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캐나다의 대학생들의 '우리'에 대한 반응은 한국 대학생들의 그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들의 '우리'에 대한 연상은 개인들의 집합이 60%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는 취미집단(15%), 세 번째는 밀착성, 친근감, 동류의식(15%)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대학생들은 '우리'를 정서적인 관계로 느끼기보다 각기 독립적인 개인의 모임이나 같은 취향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Kim(1994)은 집단주의 문화의 한국과 개인주의 문화의 캐나다 대학생들의 '우리'에 대한 연상의 차이를 <그림 1>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한국사람들의 '우리'는 개인의 고유성이 약해지거나 사라진 동질적 유대개념이며 외부와의 경계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라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우리' 집단의 화목을 위하고 집단의 다수의 의견을 따르도록 구성원에게 종용하며 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의 표현을 억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이에 비하여 캐나다의 집단은 고유성을 지닌 개인의 집합이며 집단 내에서 구성원 개개인의 독립성을 유지할 뿐 아니라 집단의 조화를 위하여 구성원이 받는 요구는 매우 적다고 하였다.

집단주의-개인주의의 비교문화적 연구결과와 조공호의 두 대비되는 문화의 동기에 관한 연구 그리고 '우리'라는 어휘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의 결과들이 한국문화와 한국인들의 가치관과 인간관계와 관련된 행동양식에 대하여 거의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국사회는 집단문화로 분류되며, 한국인들은 관계중심적 사고방식이 주류를 이루어 타인지향 동기와 자기확장 동기가 지배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집단에서 구성원들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각 개인의 고유성을 줄이고 소속한 집단의 전체적 분위기에 몰입하며 외집단과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한국의 집단주의 성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

우리 나라 사람들의 인간관계와 공동생활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최근 들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이

조사연구들은 성인을 상대로 이들이 소속한 집단의 수와 종류를 조사하였고 이러한 집단에서의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공동생활과 관련되는 변인들을 탐색하는 연구들이었다.

이종한(1992)이 한국의 중년 남자(나이 평균 36.9세)와 미국의 중년 남자(나이 평균 39.8세)가 가입하고 있는 공동생활 집단의 수와 그 종류를 비교한 바에 의하면, 전체 가입 집단의 수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으나(한국 = 4.7개, 미국 = 5.1개) 집단의 유형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한국의 조사대상자들이 주로 가입한 집단들은 기존의 인간관계를 근거로 조직되는 비자발적 집단인 동창회(1.6개), 가족모임(0.4개), 그리고 향우회(0.1개)의 수가 모두 2.1개인 반면에 미국의 조사대상자들은 동창회에만 평균 0.3개 가입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자발적 집단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의 중년들은 평균 2.6개의 자발적 집단에 가입하였고 미국의 중년들은 평균 4.8개의 자발적 집단에 가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주의문화로 분류되는 한국사회와 개인주의의 대표적인 문화로 분류되는 미국의 문화의 행동양식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것이라 하겠다. 한국사람들이 가입하는 집단의 유형에 대해 시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한국의 중년들이 가입한 공동생활의 집단의 반 이상(55.3%)이 자발적 집단이라는 것은 한국의 중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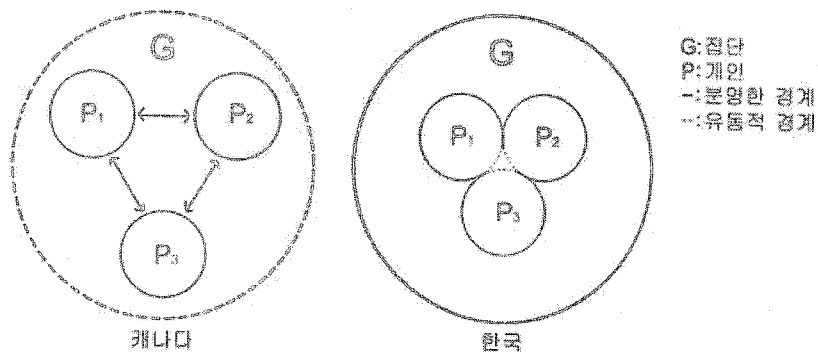


그림 1. 한국과 캐나다의 '우리' 비교

자료출처: Kim, U.(1994).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onceptual clarification and elaboration. In U. Kim et al.(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 77-84. Thousand Oaks, CA: Sage.

들이 선호하는 집단공동생활의 형태가 개인주의 문화에서 주로 보이는 형태를 닮아가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종한의 연구(1992)에 의하면, 그가 조사한 9개의 공동생활(직계가족, 가까운 친척, 먼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동창회, 취미집단, 이웃, 종교집단)에 대한 공동체의식 점수를 가지고 한국과 미국 문화를 구별하기 위하여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한국문화의 특성은 동창회와 먼 친척에 강한 공동체의식을 느끼는 반면에 미국의 문화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은 직계가족과 종교단체에 보다 강한 공동체의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함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를 위의 기준에 따라 판별한 결과 80%를 한국과 미국문화로 바르게 판별하였다.

이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한국과 미국의 중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소속한 공동생활의 종류와 9개 가지의 공동생활 집단에 대한 공동체의식을 비교하였을 때 두 문화가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이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한국사람들은 집단주의 문화의 특성으로 확인되어온 동창회, 가족모임 그리고 향우회와 같은 비자발적 집단을 선호하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동창회에만 아주 소수의 응답자가 관심을 보였을 뿐 그들이 소속한 거의 모든 공동체는 개인주의 문화의 특성으로 간주되는 자발적 집단을 선호하였다. 또한 공동체의식 점수로 두 문화의 응답자의 성향을 구분하는 것 역시 성공적이었다. 종합하면, 한국의 중년들은 미국의 중년에 비하여 집단주의적 성향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사람들의 모임활동의 기초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20세 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82.8%가 친목모임, 취미모임, 사회봉사모임 및 종교모임 등에 참여하고 있었다(김혜숙·최진호, 1997).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모임활동은 친목모임으로 75.6%의 조사대상자들이 하나 이상의 친목모임에 가입하였는데 이 중 동창회에의 참여가 높았다. 그 다음으로 가입수가 많은 것은 종교모임(23.1%)이고 다음이 취미모임(17.8%)이고 사회봉사모임에의 가입자

는 제일 낮아서 6.7%만이 가입하고 있었다.

앞의 전국조사를 통한 공동생활에 대한 연구와 연결된 후속 연구로서 9개의 공동생활/활동집단을 대상으로 각 집단의 핵심인물과의 심층면접을 한 공동생활집단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이종한·김혜숙·김영진·김완석·나은영·이선이·조성을, 1998)와 이 질적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질문지를 작성하여 9개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조사한 연구(이선이·나은영·김영진·김완석·김혜숙·이종한·조성을, 1998)가 있다. 이 연구들에서 공동활동 유형의 선정은 비자발성, 정치성, 영리성을 배제의 기준으로, 그리고 보편성, 미래성을 선택의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관주도적이거나 강제적인 공동생활 유형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발적 사회조직에 해당하는 공동생활 집단을 국한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가족과 친족집단이나 직장도 제외하였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보편성이 비교적 높은 집단으로서 다소 전형적인 공동활동 유형과 근래에 출현하여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공동활동 유형으로서 일반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미래에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유형들을 조사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선정기준을 적용한 결과 비교적 전형적이고 보편적인 형태의 공동활동 유형의 집단으로는 동창회, 향우회, 농촌 상조회, 종교단체의 평신도회, 부녀회가 선정되었고, 근래에 출현한 다소 비전형적이지만 미래형의 공동활동 유형으로는 거주와 생산활동을 공유하는 복합공동체, 먹거리를 매개로 하여 환경보존 운동을 하는 생활협동조합, 육아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공동육아협동조합, 그리고 PC통신을 매개로 하는 PC통신 동호회가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먼저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분석의 결과를 보면(이종한 등, 1998), 우리사회에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동창회, 향우회, 그리고 상조회의 회원들은 회원들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도모하는 것을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모임에서의 활동은 모임의 원래 취지를 넘어서 직장생활이나 다른 사회생활을 함께 있어서 필요한 정보 교환 등의 순기능도

있다. 그러나 모임의 과도한 응집력과 동조적 압력은 구성원의 사생활과 사소한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설립취지로 하는 공동육아모임, 생활협동조합, 복합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 있으나, 자신들의 가치관 또는 행동과 자신들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 현실과의 괴리로 인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를 주된 목적으로 형성된 집단인 평신도회와 부녀회는 자신들의 봉사활동이 보다 여러 사람들에게 보편화되기를 기대하였다. 최첨단의 모임으로 컴퓨터망의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PC통신 모임은 아직 그 조직이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새로운 형태의 인간관계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비전형적인 모임활동의 구성원들의 연령층은 대체로 젊어서 친목도모를 주로 하는 전형적인 모임의 구성원과 대조적이었다. 특히 PC동호인 모임은 20대와 30대의 직장인들이었고, 공동육아모임의 회원들도 고학력의 젊고 비판적인 지식인들이었다.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생활협동조합의 회원들은 그 지역에 연고가 없거나 적은 연고가 외지출신의 3-40대의 주부들이었다.

아홉 개의 모임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방법에 의한 양적 분석의 결과도 앞의 질적 분석(이선이 등, 1998)의 결과를 전반적으로 확인하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의 공동활동집단의 형성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연고주의적 특성이 비전형적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공동생활은 사회적 가치보다는 인간관계의 확장, 자기발전, 실질적 문제해결 등 개인적인 필요와 가치를 추구하는 면이 강하였다. 공동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이 얻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성질의 것이며, 실질적인 문제해결은 이를 목적으로 형성된 모임을 제외하고는 중요하지 않았다. 모든 모임활동은 가정 및 직장생활과 상충적인 관계이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사회학자 김선업(1992)은 인간관계를 연결망(network)의 구조로 분석하였는데, 조사대상자는 25세 이상의 서울 및 수도권 거주 직업종사 319명이었고 조사방법은 심층면접을 하였다. 연결망에 의한 관계유형의 비

율은 학교동창이 30.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직장동료(24.6%), 부모와 형제(11.2%), 그리고 이웃(7.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경험적 연구의 결과들이 인간관계와 관련된 조선조의 역사적 고찰 내용과 비교문화심리학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집단주의적 성향을 확인하여 주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의 고찰과 이론과 경험적 연구의 결과들이 한국사람들의 인간관계가 집단주의적이라는 것은 현재의 한국사람들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 확실한 기초를 제공한다고 본다.

한국과 미국의 동창회 비교

한국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자주 만나는 집단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창회이다(김선업, 1993; 김혜숙·최진호, 1997; 이종한, 1992). 동창회라는 공동체는 누구나 자신이 졸업한 학교의 동창회에 졸업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가입되어 별도의 노력 없이도 회원자격이 취득되는 전형적인 비자발적 집단(involuntary group)인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상당수의 대학동창회와 과거의 명문 고등학교는 상당한 규모의 독자적 건물이나 사무실을 보유하고 회원들의 친목도모와 사회적 성취 그리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규모의 동창회는 외국을 포함하여 지역별 분회조직과 직장별 분회조직 그리고 대학동창회의 경우는 단과대학과 학과별 동창회 모임도 함께 만들어서 동창회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해 가고 있다. 동창회는 집단주의 문화의 공동체에서 발견되는 심리사회적 특성인 회원들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여 서로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기능(이종한 등, 1998), 자기 확장의 동기를 충족시키는 기능(이종한 등, 1998; 조궁호, 1999)과 학연을 이용한 출세(이종한, 1994) 등이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주의 문화인 한국의 전형적인 집단인 동창회가 개인주의 문화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도 있으나 그 설립취지와 기능이 한국의 그것과는 대조적이다.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의 동창회의 내면을 비교하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의 대학교 동창회²⁾ 회칙 중에서 목적 (mission 또는 purpose)을 서로 비교하여 보았다. 각 대학교 동창회의 회칙의 목적 조항은 홈페이지에 수록된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한국의 대학교 동창회 모임의 목적의 공통점은 동창회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이다. 물론 모교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조직의 목적에 두지만 어디까지나 두 번째의 목표임이 분명하다. 이화여자대학교만 모교의 발전을 동창회 조직의 우선적 목적으로 명시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동창회들의 회칙에는 동창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로 하는 사업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우의 증진을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다음으로 모교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회원들의 친목 도모를 주로 하는 동창회는 한국을 떠난 외국에서도 그 위력을 다양한 영역으로 발휘하고 있다. 한국교민사회가 상당히 발전된 시카고를 포함한 미국의 중서부와 동남부지역의 한국인의 업소 주소록(시카고 한국일보, 1990)에서 업소별 안내를 하기 전에 주요기관을 소개하는 가장 앞부분에 시카고 지역의 대학교 동창회 37개와 중·고등학교 동창회 47개의 연락처를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 수록된 학교의 이름들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들로서 상당수의 대학교와 과거의 명문 고등학교가 거의 모두 나열되어 있다. 또한 한국의 특정 지역을 근거로 한 향우회 또는 도민회의 연락처가 9개 정리되어 있다. 개인주의 문화에서 흔하게 보이는 이차집단으로서 취미집단인 골프클럽 28개를 안내하였는데 이 중에서 동창회 모임의 기존 관계를 바탕으로 조직된 것이 분명한 클럽이 10개이고 종교단체의 인간관계를 전제로 구성된 클럽이 1개이었고 나머지 중에도 일부는 기존의 모임을 모체로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상당수 있었다. 한국사람들의 기존의 학연과 지연과 같은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연고주의의 단체는 미국에 사는 이

민사회에서도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들의 자아를 확장하는 모국에서의 기능을 확실하게 구현하고 있다고 본다.

미국의 대학교 동창회의 기능은 어떠한가?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미국의 몇몇 대학교의 동창회의 회칙의 목적 또는 사명을 검토하였다(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1> 참조). 미국의 대학교 동창회 회칙은 조직의 목적이 한국의 그것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훨씬 자세하고 한국의 경우 동창회의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기술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미국의 대학교 동창회의 목적과 그 조직이 수행하는 사업들은 지적 및 재정적으로 모교의 발전을 후원하는 것이다. 또한 모교의 각종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동창생과 연결하게 하여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한다. 이들 동창회가 부분적으로는 그 학교의 졸업생인 동창생들간의 의사소통 채널의 기능을 하지만, 우리 나라의 동창회처럼 동창생의 친목도모를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지는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일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다. 동창회라는 졸업생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미국이 같지만, 그 조직이 목적하는 바와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각각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창회 조직 내에서 회원들간의 관계와 회원과 동창회 조직간의 관계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면 앞에서 설명한 집단주의-개인주의의 비교(조공호, 1999; Hofstede, 1980, 1983; Triandis, Leung, Villareal, & Clark, 1985; Triandis, 1988)와 '우리'에 대한 한국과 캐나다의 비교문화적 연구결과(Choi et al., 1993; Kim, 1994)와 의미하는 바가 같다고 해석된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동창회에서는 구성원들간의 정서적 의존과 강한 동료의식 그리고 자기확장의 동기를 충족시키는 반면에 미국의 동창회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자기 충족적이고 자아실현 동기를 구현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개인주의로의 변화 경향

여러 연구에서 한국사회를 전형적인 집단주의 문화

2) 한국과 미국 대학의 동창회 회칙의 목적 조항과 각 동창회의 홈페이지 주소는 참고문헌의 마지막 부분에 <부록 1>로 첨부하였다.

로 분류하여 왔지만(Hofstede, 1980, 1983; Triandis, Leung, Villareal, & Clark, 1985; Triandis, 1988 등), 앞에서 언급한 경험적 연구들에서 한국사회에서 이미 개인주의 성향이 상당히 있음을 시사하였고 한국사회의 특성이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연구들도 있다.

차재호와 정지원(1993)은 1979년에 기혼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집단주의-개인주의와 유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양면성을 보인다. 1980년경 한국인들은 집단의 수용이라는 면에서는 집단주의 경향을 띠었지만, 내집단 편애와 부모-자녀간의 의존관계에 있어서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였다. 또한 개인주의적 성향은 도시거주 고학력층 다시 말하면, 현대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조남국(1991)은 국내의 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 273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의식, 주위 동료들의 행동, 그리고 사고방식의 변화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자신이 소속한 집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집단에 대하여 의존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양한 개인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동료들의 의식이 급속히 개인주의적인 경향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끼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사회의 성격을 집단주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동료들이 자신감, 능력, 능률의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지만, 경쟁심과 승부욕이 강하고 자기중심적이거나 자기편의적인 사고에 치우치는 경향 또한 강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전통적 집단주의로부터 탈피하려는 노력이 동료들에게서 개인 생활영역을 확보하려고 하고 생활의 단위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꿈과 이상이 결여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렇게 꿈과 이상이 결여된 점은 미래지향성을 주목점으로 하는 서구의 개인주의(Triandis et al., 1985)가 한국에서 생성되면서 나타난 과도적이거나 독특한 변모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조남국(1991, p.32)은 자신의 연구결과에 의하여 한국식 개인주의를 “시대 변화에 따른 개인주의의 올바른 정착이라기보다는 집단주의적 사회에서의 개인의 발전에 대한 도취이며,

자신의 권익이 중요한 만큼 남의 권익도 존중되어야 하는 개인주의 진면보다는 자기지상주의와 자기편의성의 추구에 더욱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한국인의 일반적 성향으로 간주되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아닌 서구식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고하는 최근의 연구들이 있다. 한국을 집단주의 문화의 전형으로 가정하고 실시한 분배원리(distributive principle) 선호경향에 관한 과거의 연구들(Leung & Park, 1986; Kim, Park, & Suzuki, 1990)은 한국의 대학생들이 미국과 일본의 대학생에 비하여 집단주의 문화의 특징으로 간주되는 균등원리(equality principle)를 사용하는 분배자를 더 좋게 평가하거나 개인주의 문화의 특징인 형평원리(equity principle)를 적게 선호한다고 하여 한국문화를 집단주의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종한(1993)이 종업원 1,000명 이상의 대규모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관리직 종사자 300명을 대상으로 인간관계와 작업능력에 따른 분배원리 선호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남자와 여자 생산직 근로자와 관리직 종사자 모두가 선호하는 분배원리는 형평원리이었다. 특히 남자 생산직 근로자들은 형평원리의 선호가 매우 분명하였다. 즉, 요즘은 한국의 대규모 직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하였을 때 일하는 과정에 투여된 각자의 인간관계와 과제수행의 질에 따라서 보수를 받기를 원하였다. 이 연구가 개인주의 문화의 조사대상자와 직접 비교되지 않아서 해석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직장인들이 형평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대인관계의 태도와 가치지향이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변해가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해석된다.

한규석과 신수진(1999)은 성인 남녀 848명을 대상으로 개인주의-집단주의와 수직-수평의 두 축을 작용한 네 가지의 유형을 척도화 하여 연구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집단주의-개인주의의 성향, 가족주의의 이념 그리고 유교적 가치관을 다루었다. 전체적으로는 개인주의자(51%)와 집단주의자(49%)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네 가지 분류에서는 수평-개인주의

자(46%), 수평-집단주의자(28%), 수직-집단주의자(21%) 그리고 수직-개인주의자(5%)의 순서로 분포하였다. 또한 낮은 연령대와 학력이 높은 응답자들이 개인주의 성향을 강하게 보였으며, 모든 계층에서 수평성향자가 수직성향자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가치관은 약하게 견지되고 있었으며 수평-개인주의자들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수직-개인주의자와 수직-집단주의자들에서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문화가 전통적으로 수직-집단주의에서 수평-개인주의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성열과 안창일(1990)은 우리 나라의 31세 이상 65세 이하의 성인으로 자녀를 가진 580명(남자 308명, 여자 272명)을 상대로 집단주의-개인주의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집단주의 경향은 연령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교육수준과는 부적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집단주의 경향이 높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집단주의 경향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들이 설정한 가설 '한국문화가 개인주의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를 지지하는 것이었다.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세대차이를 분석한 연구(김명연·김의철·박영신, 2000)에서도 청소년은 진보지향적인 반면에 성인은 보수지향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일반적인 가정을 확인하여 주었다. 조맹기(1995)도 현대 한국사회는 집단주의를 근간으로 하되 개인주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는 사회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사회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을 발견하는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주제와 변인에 대하여 많은 수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한국인들의 인간관계에서 개인의 존재의미를 존중하는 개인주의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은 분명하다. 특히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회변화의 방향이라 할 수 있는 고학력화, 도시화, 현대화 등과 개인주의적 성향이 함께 진행되는 것은 이미 한국사회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간이 경과하면서 개인주의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소위 21세기의 지식정보시대를 맞아 사회의 변화는 더욱 속도를 더할 것을 고려한다

면 한국사회에서의 개인주의의 발달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논 의

우리 나라 사람들의 집단을 통한 공동활동에 대해서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쳐온 유교적 전통은 비교문화심리학에서 설정한 집단주의 문화의 철학적 기틀과 문화적 규범을 제공해 주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의 문화를 집단주의로 분류하고,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와 비교해본 이론적 연구의 결과는 우리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창회를 포함한 공동생활에 관한 경험적 연구 결과들에 의해서 뒷받침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복잡해지면서 변화한 새로운 생태에 적응하는 수단으로 전통적인 집단주의적 성향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변화해 가고 새로운 형태의 집단생활이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집단활동과 수평적 사고방식과 같은 개인주의 문화의 특성이 우리 사회에서 발견되는 것은 우리의 오랜 역사와 고유의 문화를 고려할 때 과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사회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진과 같이 어느 순간의 모습을 촬영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정지된 모습을 보기보다 과거 → 현재 → 미래의 시간적 맥락에서 변화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면 더욱 역동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더욱이 사회에 대하여 어떤 의도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변화를 역동적 차원으로 분석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미 사회의 변화 특히 집단 또는 공동생활의 변화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Wirth(1964)는 인간의 공동생활이 과거에는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비교적 복합적인 공동체가 삶의 기반을 이루었으나 근대에 와서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분화됨에 따라 일상생활이 다원화되고 또한 개인이 가입하는 사회의 집단들도 이처럼 다원화되었다고 하였다. Triandis와 동료들(1988)도 현대인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사회 조직으로는 가족 및 친족집단, 친구, 이웃, 직장, 학교, 정치조직, 그리고 종교단체를 포함한 자발적 공동 활동조직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자발적 공동활동조직에의 참여가 가장 특징적인 생활 양식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김선업(1992)은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개인적 연줄은 규범적 집단주의의 전통으로 환원되기 어려운 개인주의적 집단주의를 재생산하는 매개적 구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사람들의 가치관과 행동규범은 아직 집단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동창회의 조직과 기능은 한국의 문화적 규범을 전형적으로 담고 있는 공동생활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수평적 사고의 선호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생성과 PC동호회와 같은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미래 지향적인 공동생활의 출현은 우리에게 사회변화에 관심을 쏠리게 한다.

사람들의 인간관계, 사고방식과 행동규범 등이 경제발전과 유관함을 밝히는 연구결과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개인주의로의 변화 가능성과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의 특성을 닮아가는 과정과 기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경제발전과 개인주의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결과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한다. Hofstede(1980, 1991)의 연구에 의하면, 국가의 개인주의 점수와 국민소득 사이에 높은 정적 상관($r=.77$)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개인주의로 변화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즉, 국가의 경제력이 증대되면 이전과 달리 국민들도 경제력을 가지게 되어 자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개인적 활동 수준이 올라가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규석(1995)은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의 부수현상으로서 새로운 생태계에 적응하는 가치로서 개인주의적 가치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

예로서 먹거리를 장만하기 위하여 과거에는 디딜방아와 같이 두 사람 이상이 협력해야만 되는 과정이 필수적이었으나 침단의 전자제품은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생활 여건을 변화시켰다. 개인주의적이고 진보적인 가치관이 보수적인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대체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임희섭, 1994; 한성열·안창일, 1990). 최근 한국의 경제가 구제금융의 타으로 일시적으로 그 발전의 방향이 뒷걸음치기도 하였지만, 장기적으로 큰 국면을 본다면 우리의 경제사정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경제발전과 개인주의의 관계를 우리사회에 결부시킨다면 개인주의 성향의 출현은 자연스러운 추론이 될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앞에서 설명한 한국사회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을 확인하는 연구결과들 즉, 내집단 편애와 부모-자녀간의 의존관계와 고학력층에서의 개인주의적 성향 고조(차재호·정지원, 1993)와 나이가 적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임(한성열·안창일, 1990)과 젊은 세대가 진보적 사고(김명언·김의철·박영신, 2000)를 많이 하고 미래지향적 행동을 한다(이종한 등, 1998)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의 모습이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예상할 수 있게 한다.

사회는 한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사회의 변화에 관하여 지역공동체심리학(community psychology)의 입장은 매우 적극적이다. 사회의 변화는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 수의 증가와 인구의 변화 등과 같이 우리의 의도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때로는 정치집단이나 사회운동가의 노력으로 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해 가기도 한다. Duffy와 Wong(2000)은 사회의 변화를 사회가 자발적으로 변하는 것을 비계획적 사회변화(unplanned social change 또는 spontaneous social change)라 하고 누군가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사회의 변화가 창출되는 경우를 계획적 사회변화(planned social change, Glidewell, 1976)라고 하였다. 이 계획적 사회변화는 사회의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므로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그 적용 범위가 대체로 제한적이고 변화에 대한 저항 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회에서 구현되기 쉽다(Duffy와 Wong, 2000). 비계획적 사회변화 중에서 예견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회의 변화를 미리 알 수는 없겠지만, 의도적이지 못하고 계획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변화의 추이를 예견할 수 있는 비계획적 사회변화도 있다. 즉, 인구를 연령층별로 분석하면 노인 인구의 증가 추세를 추산할 수 있게 되어 몇 년 후에 노년층이 우리 사회에서 가져다 줄 과제를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 한국의 사회가 전통적인 집단주의적 성향에서 개인주의적이고 진보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심리학자가 사회변화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되며,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사회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더 정확하고 많은 수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내용과 방향이 과연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가치판단이 개입된 연구를 쌓아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리학자가 사회의 변화에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과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계획적인 사회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다면 심리학의 소임을 충실하게 완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명언 · 김의철 · 박영신(2000).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181-204.
 김선업(1992). 한국사회 연줄망의 구조적 분석. 한국사회학, 26(여름호), 1-33.
 김선업(1993). 연줄망과 연고주의. 임희섭 · 박길성(공편). 오늘의 한국사회. 서울: 나남. 169-190.

김인결(1983). 조선후기 향안의 성격 변화와 재지사족. 김철준박사회갑기념논총. 서울: 지식산업사.
 김혜숙 · 김영진 · 김완석 · 나은영 · 이종한 · 조성을 · 최진호(1997). 공동생활과 주관적 안녕감.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혜숙 · 최진호(1997). 한국인의 모임활동과 주관적 안녕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3(1), 41-60.
 박경하(1993). 조선후기 촌락민 조직과 촌계. 정신문화연구 53.
 박기순(1995). 유교적 인간 관계의 현대적 의미. 임태섭(편). 정, 체면, 연줄 그리고 한국인의 인간관계. 서울: 한나래. 255-269.
 박수현 · 최상진(1990). 우리성에 대한 사회심리적 개념화.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69-78.
 시카고 한국일보(1990). '90한인업소전회부. Chicago, IL: The Korea Times-Chicago.
 신용하(1987). 공동체이론. 서울: 문학과 지성사.
 유철중(1980). 새마을 운동의 역사적 고찰. 새마을 운동 10주년 기념 연구논문집, 3-31.
 이선이 · 나은영 · 김영진 · 김완석 · 김혜숙 · 이종한 · 조성을(1998). 공동활동 집단의 심리사회적 특성: 양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157-176.
 이종한(1992). 공동체이식에 관한 개인주의-집단주의 관점에서의 비교문화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2), 76-93.
 이종한(1993). 남자와 여자 생산직 및 관리직 종사자의 분배원리 선호 경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245-253.
 이종한(1994). 연구주의가 한국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대안의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83-94.
 이종한 · 김혜숙 · 김영진 · 김완석 · 나은영 · 이선이 · 조성을(1998). 공동활동 집단의 심리사회적 특성: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137-155.
 임희섭(1994).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나남출판사.

- 임희섭 · 박길성(공편)(1993). *오늘의 한국사회*. 사회비평신서 36. 서울: 나남.
- 조궁호(1999). 문화유형에 따른 동기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 (2), 233-273.
- 조남국(1991). 한국 조직 내에서의 개인주의의 생성. *한국사회심리학과 회의 율례 발표논문*. 중앙대학교.
- 조맹기(1995). 한국인의 두 얼굴, 나와 우리. 임태섭(편). *정, 체면, 연줄 그리고 한국인의 인간관계*. 서울: 한나래. 235-254.
- 차재호 · 정지원(1993).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집합주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50-163.
- 최상진(1993). 한국인과 일본인의 우리 의식 비교.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229-244.
- 최재석(1966). 동족집단의 기능과 성격. *민족문화연구* 2.
- 최재석(1983). *한국 가족 연구*. 서울: 일지사.
- 최재석(1989).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중판)*. 서울: 개문사.
- 한국갤럽연구소(1990).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서울: 저자.
- 한규석(1995).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한규석 · 신수진(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한상복(1980). 한국인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의 사회와 문화*, 3, 141-181. 서울: 편저자.
- 한성열 · 안창일(1990). 집단주의와 나이, 교육, 결혼 및 주거형태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116-128.
- Allport, G. W.(1968).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modern social psychology. In G. Lindzey and E. Aronson(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2nd ed., Vol. 1). Reading, MA: Addison-Wesley.
- Berry, J., Poortinga, Y., Segall, M., & Dasen, P.(1992).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oi, S. C., & Choi, S-H.(1990). *The conceptualization of Korean tact, Noon-Chi*. Presented at 10th IACCP International Congress. July 16~21, Nara: Japan.
- Choi, S. C., Kim, U., & Choi, S-H.(1993). Indigenous analysis of collective representation: A Korean Perspective. In U. Kim & Berry(Eds.). *Indigenous psychology*. Thousand Oaks, CA: Sage.
- Duffy, K. G. & Wong, F. Y.(2000). *Community psychology*(2nd Ed.). Needham Heights, CA: Allyn and Bacon.
- Fung, Y.(1952). *A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ofstede, G.(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 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Hofstede, G.(1983). National cultures in four dimensions: A research-based theory of cultural differences among nations. *International Studies of Management and Organization*, XII, 46-74.
- Hofstede, G.(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Hill
- Hsu, J. K.(1971). Psychological homeostasis and jen: Conceptual tools for advancing psychological anthropology. *American Anthropologist*, 72, 23-44.
- Kalton, M. C.(1988). Korean ideas and values. In NAFSA(Ed.) *Korean papers: Profiles in educational exchange*. NAFSA field Service, National Association for Foreign Student Affairs.(Reprinted from No. 7 of The Phillip Jaishon Memorial Papers, 1979).
- Kim., K. I., Park, H., & Suzuki, N.(1990). Reward allocation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A comparison of individualistic and collectivistic cultur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3(1), 188-198.
- Kim, U.(1994).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onceptual clarification and elaboration. In U. Kim et al.(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 77-84. Thousand Oaks, CA: Sage.
- Leung, K., & Bond, M. H.(1984). The impact of cultural collectivism on reward allocation. *Journal of*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793-804.
- Pai, Y.(1990). *Toward a reconceptualization of community*.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issouri-Kansas City, School of Education, Kansas City, MO.
- Triandis, H. C., Bontempo, R., Villareal, M. J., Asai, M., & Luca, N.(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323-338.
- Triandis, H. C., Leung, K., Villareal, M., & Clack, F. L.(1985). Allocentric vs. idiocentric tendencie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 1006-1020.
- Wirth, L.(1964). Urbanism as a way of life. In *On Cities and social life*. Series of heritage of sociolog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부록 1. 한국과 미국의 대학교 동창회의 회칙(목적) 및 홈페이지 주소

한국의 대학교 동창회의 회칙(목적) 및 홈페이지 주소

건국대학교 <http://www.kkuua.or.kr/kintro/asp?division=intro>
총동창회 회칙 제3조(목적)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친목과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려대학교 <http://kuua.or.kr/kr/index.asp>
교우회 회칙 제2조(목적) 본회는 교우상호간의 친목과 교우 및 모교사이의 친화를 도모하여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아대학교 http://www.alumnidonga.com/intro_rule.htm
총동문회 회칙 제3조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세대학교 <http://alumni.yonsei.ac.kr/jtml/introduction/rule.html>
동문회 회칙 제2조(목적) 이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을 통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남대학교 <http://www.yn.or.kr/indew03.htm>
총동창회 회칙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단결을 통한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향상과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화여자대학교 <http://home.ewha.ac.kr/~Ewhalum/submain1.html>
총동창회 회칙 제2조(목적) 이회는 모교의 발전을 적극 협조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한신대학교 <http://www.hanshin.ac.kr/~dongmun/>
총동문회 회칙 제2조(목적)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과 건교이념 실현에 이바지함에 있다.

미국의 대학교 동창회 회칙(목적) 및 홈페이지 주소

예일대학교 <http://www.aya.yale.edu/about/purpose.htm>
동창회(Association of Yale Alumni)는 모임의 중요한 목적을 네 가지로 요약하였다. i) 예일대학교의 발전을 후원하는 것, ii) 동창과 대학간의 상호 의사소통의 통로를 제공하는 것, iii) 모든 동창 조직과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것, iv) 법인에 제출되는 적절한 추천서와 의회에 대학의 입장이 설명되도록 하기 위해 대학의 정책에 관한 설명과 솔직한 조사를 위한 수단을(적절할 때에) 제공하는 것.

미시간대학교 <http://www.umich.edu/~umalumni/student/indexa.html>
미시간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 동창회는 현재와 미래의 동창들과의, 그리고 동창들간의 평생 지속되는 관계를 양성하는 독립적이고 세계적인 조직체이다. 대학의 헌신적인 동반자로서, 동창회는 당면한 문제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동창들에게 제공하고 대학을 위한 후원을 창출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본적인 것들은 사회복지, 성실에 대한 책임, 다양성과 서비스에 대한 교육의 가치를 믿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동창회의 목표는 학생들과 동창들 모두가 대학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UCLA <http://www.uclalumna.net/About/>
동창회의 사명은 동창생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들이 UCLA의 미래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UC Berkeley <http://www.alumni.berkeley.edu/about/overview.html>
동창회의 중요한 서비스는 졸업생들로 하여금 모교와 동료 동창생 그리고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과의 관계

를 유지시키는 것이고, 또한 동창회의 목적은 재학생과 동창생들이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헌신하도록 하는 것이다.

프린스턴대학교 <http://alumni.princeton.edu/~apga/mission.html>
프린스턴대학교(Princeton University) 동창회는 자신들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프린스턴대학교를 졸업한 동창생의 모임인 우리 동창회는 우리의 양육을 통해 필요를 충족시키고, 프린스턴 졸업생들이 갖는 체험의 독특함을 축하하는 졸업생 동창과 학생들의 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해 헌신한다: i) 역동적이고 풍부한 지성적, 사회적 교환, ii) 모든 학문적, 전문적 노력을 위한 동료간의 협력관계와 후원, 그리고 iii) 더 큰 프린스턴대학교 공동체 내에서의 우리의 활기 있는 역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여 이 사명에 기여할 모든 프린스턴인을 초대한다.

메사추세츠공과대학 <http://web.mit.edu/alum/giveback/boardofdirectors/handbook/app5artic>

메사추세츠공과대학(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의 동창회 회칙 제2조(목적)에는 다음과 같은 동창회의 목적 5가지를 기술하고 있다. i) 가능한 한 많은 동창들을 바탕으로 하여 MIT를 위한 헌신, 참여와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MIT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ii)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적, 재정적, 지적 자원을 제공하고, iii) 동창들간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개인적인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대학과 기타 다른 것에 대한 유대를 향상시킴으로써 동창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iv) 대학 동창의 특수한 집단을 대표하는 협의회가 될 수 있는 통합적인 조직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v) 필요에 따라서, 대학이나 동창과 관련된 다른 집단들, 혹은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편리한 서비스와 관련된 다른 집단(동창이 아닌 사람의 집단을 포함하여)과 계속 접촉하고 후원하고 조직하고 통제하고 혹은 조화를 도모한다.

The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Korean adults: Collectivist and moving toward individualist

Jonghan Yi

Department of Psychology, Taeg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Korean adults by reviewing the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background of Korean society, the collectivist-individualist perspective on interpersonal behavior, and the results from several empirical researches on this issue. The Confucianism as a governing philosophy of the Chosun Dynasty critically affected to Korean people on their value system, behavioral norm etc. One of the main ideas of the ideology was human heartedness(interpersonal relationship). Korean society was classified as a typical collectivist culture and it was identified by the results of several empirical studies.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he association of alumni of Korea showed more collectivist tendency in comparison with those of America. But several recent researches found that Korean people like to have individualist characteristics and to form a new style group which can be worked in the cyber space.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concluded that the value system and cultural norm of Korean society have begun to move toward individualist and more liberal. The issue regarding social change was suggested as a research subject of (community) psychologist.